



Anick La Bissonnière: After studies in architecture in Montreal (Canada) and Lausanne (Switzerland), Anick La Bissonnière first practiced in architecture studio Odile Decq in Paris and then collaborated on the creation of many theaters and auditoriums with Trizart in Quebec. In parallel to her architectural practice, she rapidly gained expertise in scenography for museums and urban public events. Anick has been teaching regularly in theater anddesign at Universite du Quebec a Montreal and in the Master degree program of architectural department at Universite de Montreal. 'The Tempest' is her third collaboration with 4D Art.

4D art: Founded in 1983, the multidisciplinary company 4D art, directed by Michel Lemieux and Victor Pilon, has presented more than 300 performances of its various productions. Over the years, 4D art has developed an unequalled avantgardist mastery of multimedia techniques applied to the performing arts.

애식 라 비쇼니에르: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건축을 공부한 후 파리에 있는 오틸 텍 스튜디오에서 실무를 쌓았다. 그 후 캐나다 퀘벡에 있는 공연 컨설팅 회사인 Trizart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다수의 극장과 공연장을 디자인하였으며, 현재까지 건축 작업과 병행하여 무대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애닉은 대학에서 무대 디자인과와 건축과 석사과정의 교직을 맡고 있다. 템페스트는 4D art와 함께한 세번째 협력작업이다.

4D art: 마이클 레미욱스와 빅토르 파일런이 주축이 되어 1983년에 설립된 4Dart는 그동안 3000편이 넘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들은 행위 예술에 멀티 미디어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독보적이며 진보적인 작품을 보여 주고 있다.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creating a mega-network that is becoming denser and denser, tearing down the barriers in time and space within contemporary society. The permeation of digital technology is changing the cultural paradigm of our society, and diverse experimentation is being made also with drama produc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new media. An art group based in Montreal, Canada, 4D Art employs the advanced technology for their experimentation in order to tear down the walls between different genres as well as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on the stage.

Their production of The Tempest, Shakespeare's posthumous work, has attracted the media's attention not only by its technological aspects but also by a fresh interpretation of the drama. As it was last year, the play is to be staged in the Howard Gilman Opera House of the Brooklyn Academy of Music in New York. The Tempest unfolds switching between the magical world and the reality. Forced by Antonio, his usurping brother, and Alonso, the king of Naples, Prospero, the duke of Milan, is set adrift with his daughter Miranda to a deserted island. Mastering the art of magic, Prospero builds a world of his own. The play opens with a storm magically raised by Prospero that overtakes Alonso and his courtiers, casting them on the shores of his island. On the stage, symbolising the vast universe of knowledge of Prospero, volumes of manuscripts are piled on the floor, forming a terrain. The stage is designed in a simple and intuitive arrangement in order to effectively show the feast of fantastic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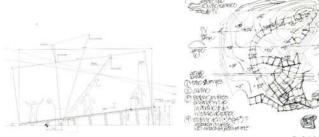
The video images are produced using a customised version of the Max/MSP computer program of Cycling 74. The virtual performers projected in the air by this technology brilliantly mingle with the real performers in perfect harmony on the stage. At the beginning of the drama, Ferdinand, son of King Alonso, also brought to the island with the same storm, is performed by the projected image, which is spontaneously replaced by a real actor when he falls in love with Miranda. The pre-recorded images of the virtual performers amplify the fantastic atmosphere with their altering sizes and airiness. With the interactions with the real performers and their realistic movements on the stage as if they fully recognize the terrain, however, they look as real as the real performers. The performers communicate exquisitely in the twilight zone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The fantastic and dreamy nature of The Tempest is greatly heightened by combining with the digital media. The drama is so superbly blended with the artistic capability of 4D Art, that one wonders how such a stage production would be possible without such technology. The dramatic sensibility is unit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to create a new realm of art.

The digital storm spilled over the stage and swept over the audience. Like a lost explorer led away by a mirage, I was also wandering between reason and the fantasy throughout the performance. And after the curtain fell I came to question the reality seen through my eye. If the performance was another imagination created by the director just like the world of fantasy magically created by Prospero, would we, the audience, be living in reality or . . . in another drama created by god.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허물고 점점 더 조밀해져 가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극공연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4D Art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르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현실과 가상의 벽을 허무는 실험을 하고있는, 캐나다 몬트리올 기반의 예술 집단이다. 이들의 세익스 피어 원작 '템페스트'는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원작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작품으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뉴욕공연을 Brooklyn Academy of Music의 Howard Gilman Opera House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세익스 피어의 유작인 템페스트는 마법과 현실사이를 오고가며 극이 전개된다. 동생 안토니오와 나폴리의 왕 알론조의 역모로 밀라노 영주였던 프로스페로는 그의 딸 미란다와 함께 어느 황량한 섬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프로스페로는 그곳에서 그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 그만의 세계를 건설한다. 공연은 프로스페로가 마법으로 폭풍을 일으켜 알론조 일행이 그의 섬으로 난파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실제 무대는 프로스페로의 지식의 세계를 상징하듯이 많은 원고들이 경사진 바닥위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지형을 형성한다. 환상적인 영상 이미지들의 향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제 무대는 단순하면서 직관적으로 표현되었다.

비디오 이미지들은 Cycling 74사에서 니온 Max/MSP 컴퓨터 프로그램의 커스텀 버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기술에 의해 공중에 투사된 가상의 배우들은 무대위에서 실제 배우들과 완벽하게 조 화를 이루며 현란하게 뒤얽힌다. 프로스페로의 마법으로 난파된 알론조왕의 아들 퍼디넌드 (Ferdinand)는 극 초반에 영상으로 보여지다 미란다와 사랑에 빠지면서 실제 배우로 자연스럽게 전이된다. 미리 녹화되어 무대에 투시된 가상의 배우들은 그 사이즈의 변화와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로 비현실성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무대위의 실제 배우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마치 무대 지 형을 읽고 걸어다니는 듯한 비디오 이미지들은 또 다른 무대위의 배우들인양 착각마져 들게 한다. 배우들은 가상과 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절묘하게 소통한다. 연극 '템페스트' 의 환상적 이며 몽환적인 성격은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하면서 강력한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마치 이러한 테크날러지가 없다면, 과연 이 공연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연극 '템페스트' 와 4d art의 예술적 기술력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연극적 감성과 첨단 테크널러지가 만나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해 내었다. 디지털 폭풍이 객석까지 몰아쳤다. 마치 신기루에 이끌려 방향을 잃은 탐험가처럼 필자역시 이성과 몽상속을 공연내내 헤메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프로스페로가 마법을 이용해 환상의 세계를 창조했듯이, 이 공연을 연출가가 만든 또 다른 가상이라 한다면, 과연 그 연극을 관람한 우리의 세계는 현실인가…아니면 신이 만든 또다른 연극인가. 글 : 정연회 해외기자



Section

Anick La Bissonnière
Sketch